

2022년 2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2. 6. 28(화) 14:00-15:00

■ 장 소 : 복지관 2층 강당

■ 참석자 : 최복수, 권양숙, 김덕숙, 김호경, 송선애, 임효연, 장정희, 전용한,
김경집, 이선옥(10명)

■ 위임자 : -

■ 사회자 : 최복수 위원장

■ 배 석 : 배은정, 정유정, 최진열 과장, 김철영, 한정임 팀장(5명)

■ 회의내용

1. 성원보고

김경집관장이 10명 운영위원 참석에 대해 성원보고하다.

2. 개회

제 2차 운영위원회 성원 보고됨을 확인하고 최복수 위원장이 2022년 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하다.

3. 전 회의록 서면 검토

최복수 위원장이 전 회의록의 가납여부를 묻자, 임효연 위원의 동의와 권양숙 위원의 재청으로 가납되다.

4. 2022년도 2분기 사업보고

사례관리, 서비스제공1, 2, 지역조직, 지역밀착형 始洞사업 순으로 각 부서장이 보고하다.

찾아가는 전통문화 힐링프로그램 단오축제 영상을 시청하다.

최복수 위원장: 전통문화사업 단오축제가 올 해 처음으로 진행되었으나 성황리에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전통문화사업이 지역 내에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바람을 이야기하다.

임효연 위원 : 종결 후 재 유입되는 사례가 있는지와 신규사례와 재유입사례에 대하여 개입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문하다. 타 기관에서도 종결 후 재 유입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상황

임을 안내하다.

정유정 과장: 재유입되는 사례는 분기에 2~3건 미만임을 이야기하다. 신규의 경우 사례관리자와의 신뢰관계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재유입사례의 경우 기존 사례관리과정을 당사자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확인하고 스스로 변화하기 위하여 어떤 실천을 하고자 하는지에 더 주안점을 두고 계획하여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음을 답변하다.

임효연 위원: 지역밀착형 始洞사업을 기관에서 왜 하고자 하는지, 궁극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질의하다. 또한, 사업의 의미에 반하여 예산이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다.

이선옥 부장: 시작은 복지관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있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복지관이 지역으로 나가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으나 실천과정에서 주민과 주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필요한 사업이라 답변하다.

김경집 관장: 지역밀착형사업은 통합 돌봄을 강조하는 서울시책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확대되어 나아갈 사업이라 답변하다.

임효연 위원: 기존 대비 후원금의 증감여부를 질의하다.

배은정 과장: 광장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유지(전년도 대비 종결 1건)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 제안으로 기업후원은 증가되고 있으며 결연후원금은 유지, 사업후원금은 조금씩 증가되고 있음을 안내하다.

김경집 관장: 인건비로 인하여 사업비가 부족한 기관으로써 외부자원 활용을 위한 직원들의 노력이 많으며 후원 기관에 자주 제안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다.

5. 2022년 광장종합사회복지관 2차추경 세입·세출(안)

이선옥 부장이 2022년도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세입·세출(안)을 보고하다.

2022년 광장종합사회복지관 2차 추경 세입·세출에 대해 김덕숙위원의 동의와 전용한위원의 재청으로 가납되다.

6. 기타 안건

최복수 위원장: 6월 초 지방선거가 진행되었으며 광진구에도 변화가 있는 상황이기에 구청

소식을 묻다.

송선애 위원: 7월 1일자로 구청장이 변경되며 구청장 당선인의 경우 서울시 복지건강실장 출신이며 부구청장 또한 복지관련 과장 출신으로 복지쪽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을 이야기하다. 다음 분기 회의 때는 새로운 플랜이 제시되지 않을까 하며 운영비만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부자원을 연결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 감사함을 표현하다. 또한, 복지관과 거리가 있는 구의1·2동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밀착형 사업을 진행하여 줌에 감사함을 표현하다.

전용한 위원: 민관협치 단오축제에 직접 참여하면서 당일 분위기가 좋아 흡족함을 이야기하다. 복지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직접비는 지출되었지만 직원들의 노력이 큰 사업으로 인하여 간접비 지원이 컸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진행에 어려움이 없었는지를 문의하다.

배은정 과장: 찾아가는 전통문화 힐링 프로그램은 전통문화를 알게 하자는 취지로 교육, 가족과 함께하는 사업, 전통문화 축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전통문화축제로 진행된 ‘단오축제’는 구의·광장·중곡 권역을 대상으로 숲나루에서 진행된 과정을 이야기하다. 지방선거와 날씨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선거가 끝난 직후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준비기간이 한 달로 매우 짧았고 오랜만에 진행된 외부사업에 처음으로 실행한 전통문화 축제였기에 부담감은 있었으나 민·관 협치 사업인 만큼 구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세종사이버대 자원봉사단 지원, 행사 날 방문 지원 등으로 운영위에서 다방면 지원을 해주셔서 잘 진행할 수 있었다고 답변하다. 또한, 하반기에 진행될 전통문화 축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다.

최복수 위원장: 추후에는 전용한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있는 광진문화원과 연계하여 진행하길 바라며 전통문화 사업이 지역 안에서 축제형식으로 지속되길 바람을 이야기하다.

전용한 위원: 성공리에 마치게 해준 전 직원들을 위하여 박수를 보냄을 이야기하다.

7. 폐회

최복수 위원장이 15:00에 2022년 2차 운영위원회의 폐회를 선포하다.